

**종합**

# “한국 F1에서 손에 땀 쥐게 하는 건 급커브가 아니라 경기장 완공여부”

## 英 유력지 성공개최 의문 제기 “개막 6주전 아직 포장 공사중”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대한 외국 언론들의 비판적인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영국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지난 9일 ‘한국, 체면 살리기 위해 경주중(S Korea races to save face over F1 Grand Prix)’이라는 분석 기사를 내고 주최 측의 미흡한 준비 상황을 지적했다.

FT는 이 보도에서 “한국 최초의 F1그랑프리 개최와 관련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것은 트랙의 급커브가 아니라”면서 “대회가 6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도로경계석 설치와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터레이스 서킷 공인규정’에 따르면 서킷 최종검수는 예정된 첫 국제 경기가 열리기 9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검수 때까지는 트랙 표면과 주요 시설 및 안전 구조물 등이 FIA(국제자동차연맹)의 기준에 맞게 완료되어야 하지만, 대회를

불과 40여 일 앞두고서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또 “9월21일 최종 실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는 경제적 재난(commercial disaster)과 정치적 당혹스러움(political embarrassment)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가로서 이는 굴욕적일 뿐 아니라 2011년 경기 이후에는 자동 실격(auto disqualification)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FT는 이어 공사가 90% 진행 중이라는 SK건설 등 공사 관계자의 말을 전한 뒤 왜 공사가 늦어졌는지 미스터리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7월까지 트랙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의아한 일”이라며 “조직위는 F1 감독기구가 매우 높은 원자재 기준을 설정해 자체 확보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하지만 이는 다소 순진한 말로 들린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모터스포츠 전문사

인 일본 오토스포츠웹과 미국 모터스포츠닷컴 등 관련 외신들은 영암에서 건설중인 F1 전용 경기장이 제 날짜에 완공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어 올 시즌 한국 그랑프리 개최마저 어려운 거 아니냐고 보도

한 바 있다.

한편,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한국대회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 까지 국내 최초로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내년 F1 한국대회 일정 확정

2011년 10월 14일부터 3일간

2011년에 열리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한국대회 개최일정이 10월 14일부터 3일간으로 확정됐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제자동차연맹(FIA) 산하 세계모터스포츠평의회(World Motor Sport Council)는 지난주 총회를 열고 ‘2011년 F1대회 일정’을 발표했다. 내년 F1대회는 인도가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올해보다 1개 대회가 늘어나 역대 최대인 총 20개 대회로 펼쳐진다. 한국대회는 싱가포르(9월 25일), 일본(10월 9일)에

이어 17번째로 열리게 된다.

한국대회가 후반기 일정에 속함에 따라 치열한 순위경쟁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F1대회는 통상 격주로 열리지만 대회가 20개로 늘어남에 따라 1주일 단위로 연이어 열리는 횡수도 올해 3차례에서 내년에는 4차례로 늘어나 선수들과 F1팀이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올해 ‘2010 F1 한국대회’는 오는 10월 22일 영암 F1경기장에서 개막돼 3일간 열린다.

/김지율기자 dok2000@



**고교생 '5·18정신 계승' 열띤 토론** 12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 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5·18기념재단 주최로 열린 '제9회 전국고등학생 토론대회'에 참가한 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 대회는 전국 각지 청소년들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청소년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0일부터 2박3일 동안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돈 선거 혐의 조합장들 헌법소원

### 이광재 효과... “최종심 이전 직무정지 부당하다”

직무정지 중인 광주지역 한 농협 조합장이 최근 현재의 지방자치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세워 자신도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 조합원들과 논란(광주일보 9월7일자 2면)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조합장의 직무정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상고한 조합장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2일 현재에 따르면 서울측합 기(69) 조합장 등 3명의 축협조합장은 해당 농협법 조합이 헌법상 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법률로 직무가 묶여 있는 서광주 농협 박모(55) 조합장은 이들이 헌소를 제기한 만큼 별도 소를 제기

하지 않고 심판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농협법 제46조 제4항 제3호는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기 조합장 등은 청구서에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유사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지난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을 위한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한편, 서광주농협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된 박 조합장이 현재의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헌관계를 내세워 3일부터 출근을 시도, 이를 저지하는

인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진동수 금융위원장 來光**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포럼, 사람과 사람들’(이사장 박광순) 초청 특강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포럼에서 ‘금융정책의 당면과제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특강한 뒤 상경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빛日만평

- 김중두



‘사계절’ 자랑도 끝인가 보다

## ‘광주 공동체 원탁회의’ 공식 출범

각계 인사 31명 참여 시정자문 역할... 14일 첫 회의

광주시의회·시민단체·여성계·언론계 대표 및 지역원로 등이 참여하는 ‘광주 공동체 원탁회의’가 14일 출범한다. 이 원탁회의는 전반적인 시정자문은 물론 전통시장·택시·시내버스 등 각 주제별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을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원탁회의에는 지역 각계 대표인사 31명이 참여했으며 분기별로 정기회의, 그리고 현안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4일 첫 회의에서는 새 야구장 신축, 2015 광주U대회 선수촌, 옛 전남도청 복원,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등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당분간 광주시가 이 원탁회의의 운영주체가 되지만 추후 논의를 거쳐 별도의 운영조직을 제정하고 민간중도의 사무국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공동대표 원탁회의를 구성한 것은 지역 내 각종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마찰을 줄여보자는 의미”라며 “각종 정책이 광주시의 일방통행으로 결정되던 기존의 관행을 탈피해 지역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01@

## 7~8월 무안공항 1만7605명 이용

### 개항 이래 최대... 불법의약품·직통기방 등 반입 늘어

올 휴가기간(7~8월) 무안공항의 입·출국 인원이 개항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무안공항 입·출국인원은 모두 1만76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7년

개항 이래 7, 8월 입·출국 인원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여행객 70% 가량은 상하이·베이징을 찾았고, 다음으로 일본, 베트남, 홍콩, 마카오 순이었다.

입·출국인원 증가로 반입물품도 증가했다. 불법의약품 43건, 전

구용 배개를 비롯한 라텍스 제품 20건, ‘짜콕가방’ 등 가짜상품 15건, 명품핸드백 7건 순이었다.

광주세관은 여행객 증가와 G20 정상회의(11월11일),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앞두고 위험물질 반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순덕 광주세관 휴대품 과장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반입물품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여행객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사원모집

당사는 전복통조림 및 수산물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회사로서 쾌적한 환경에서 세계를 향해 꿈을 펼치실 인재를 찾습니다.

**식품가공관련 - 간부직**

- 자 격 : 식품가공 관련 전문 경력자
- 인 원 : 0명

**식품 가공관련 - 연구직**

- 자 격 : 식품, 가공 관련 대학 졸업자
- 인 원 : 0명

**주 방 - 사 원**

- 자 격 : 60세 이하 여성분, 식당 경력자 우대, 공장에서 숙식가능 하신 분.
- 인 원 : 0명

**급 여 - 최고 대우, 상담후 결정**

위 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990-1  
전화번호 : 061)552-1038 / 010-3587-1836  
FAX:061)552-1037

**(주)씨푸드완도공장**

## 조선이공대학

2010년 유망신설학과

# 프랜차이즈 서비스창업과

**우리와 특징 5가지**

1. 수시1차는 성적에 상관없이 합격가능
2. 연봉 6천만원의 프랜차이즈 점장에 도전
3. 20~30대 장사,사업으로 10억 모은 점장,대표 특강
4. 술이야기, 상권분석, 커피마리스타 등 실무중심 수업
5. 네이버카페에 자세한 우리과 소개를 참고하세요

**졸업후 직원 ▶ 매니저 ▶ 점장 ▶ 창업까지**

학과카페: **NAVER 카페 bxbx**

재학중 5가지 자격증취득 (100%)

외식산업관리사 서비스경영관리사 커피마리스타 유통경영관리사 고객서비스수요증

**일학의 학과실 (062) 230-8410**  
cafe.naver.com/bxbx

## 시간과 의지만 있으면

# 당신의 능력을 LEVEL UP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 교육훈련과정 -

연 번	훈련 과정명	훈련 방법	훈련 일 수	훈련 시간
1	월기획&디자인	집체	5	20
2	편집출판디자인	집체	5	20
3	시각디자인	집체	5	20
4	네트워크보안실무	집체	5	20
5	Oracle 10g	집체	10	30
6	Java웹프로그래밍과정	집체	5	20
7	Frame Work개발과정	집체	5	20
8	임베디드·안드로이드 과정	집체	5	20
9	USN System개발	집체	5	20
10	LabView과정	집체	5	20
11	제품디자인	집체+현장	5	20
12	3차원설계및 치수검사	집체+현장	5	20
13	실무자를 위한 고급 Excel	집체	5	20
14	DFSS	집체	5	20
15	ERP회계모듈	집체	5	20
16	ERP물류모듈	집체	5	20
17	PM양성과정	집체	5	20
18	전략기획	집체	5	20
합 계				18개 과정

교육문의 062) 380-8403~6  
Fax 062) 380-8443

주관 : 호남대학교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단  
후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